

페르소나&amp;유저시나리오

## "어디 조용히 쓸만한 카페 없나?"

"점심시간이 2시간인데 점심을 먹은 후 바로 회사로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서 종종 직장 동료분들과 식사 후 카페를 가는데 다들 조용한 성격인 저를 챙겨주시려고 "어디카페 갈까?" 하고 물어보세요. 계획에 없던 일이라...당황스러운적이 많아요. 모두의 취향에 맞추면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카페를 찾아도 검색으로는 그런 곳을 찾기 어려워요."



이름 : 김히어라

나이 : 28세

직업 : 3년차 it기업 직장인

수입 : 연봉 3600만원

mbti istj로 예민한 성격 탓에 조용하고 사람이 많이없는 카페를 선호하며, 회사에서는 묵묵하게 본인이 맡은바를 매우 꼼꼼하게 잘 수행해내는 꼼꼼한 성격이다.

페르소나&유저시나리오

# "김히어라의 사용자 니즈"

## "소중한 점심시간 낭비할 순 없어"

소중한 점심시간을 검색하는데 낭비하기 싫다.  
빠르게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원하는 카페를 추천 받고 싶다.



사용자는 빠르게 원하는 검색 결과를 받기를 원한다. 굳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키워드를 말하기만 하면 회사 주변에 있는 카페정보를 받아 보고 싶어함으로 음성지원을 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동기	시나리오	기능/콘텐츠	이용 행태
매일 직장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카페를 가는데 갑자기 나에게 카페를 추천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추천해주면 좋을지 난감하고 어렵다.	갑작스런 질문에 그냥 직장 주변 가장 가까운 카페에 가자고 했는데 다들 "또?"라고 한다.	지도검색, 어플사용	쉽게 카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어플 검색 후 음성인식을 통해 빠르고 쉽게 주변 카페를 검색 한다.
점심시간의 여유를 즐겨야하는데 카페 검색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최대한 조용하고 맛있는 카페를 알고 싶다.	겨우 sns에서 검색해서 찾아간 카페의 커피 맛이 이상하다. 가격도 저렴하지 않은데 다들 커피를 절반 이상 남겨버렸다.	sns검색, 어플사용	sns검색 이후에도 괜찮은 카페인지 어플을 통해 확인한다.